

## 역(逆)번역을 통한 한영번역의 훈련과 평가

이 지 연  
(이화여대)

### 1. 머리말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과 더불어 정보의 교류 속도도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물론 방송과 인터넷이라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멀티미디어의 등장이 크게 일조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변함없는 기록된 랑그(langue)<sup>1)</sup>가 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정보의 유통을 위해서는 랑그, 즉 한 집단이 소유하는 기호목록을 매개하는 통번역이 필요했고, 역사적으로도 근현대사

---

1) 스위스 언어학자 소쉬르는 언어를 이원적으로 인식하였는데, 랑그(langue)와 파롤(parole)이 그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랑그(langue)와 파롤(parole)의 이분법이라 정의하는데 이분법 Dichotomie이란 내용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개념쌍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랑그(langue)란 일종의 “사회적 사실 fait social로서, 국어 및 역사상의 개별어라는 개념의 언어를 말한다. 랑그란 한 언어사회내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통된 기호체계이기 때문에 마치 공동계약을 통해 약정된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서 랑그란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호목록이다.

를 보면 문명과 문화의 전파는 통번역 활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이런 문명과 지식, 문화의 교류의 최고의 소통 수단인 번역은 기술 및 교통의 발전,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양과 질적인 면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2009년도 출판통계<sup>2)</sup>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도서 발행 종수 중 번역서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5%대에 머물렀으나, 번역출판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2000년대 이후로는 30%에 육박할 만큼 대폭 증가하였다. 즉 지난 10년 사이 번역서 발행 종수가 5천종대에서 1만 종대로 2배나 늘어나면서 그 비중도 자연스럽게 배가된 것이다. 그만큼 번역문이 한국인의 말글 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 특히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책일수록 번역서가 많기에 지식층과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다.

최근에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이 커지면서 인바운드뿐 아니라 아웃바운드 통번역도 크게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번역은 제1언어로 행해진다는 전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제2언어로의 통번역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제1언어로의 번역 학습이 제2언어로의 번역학습과 다른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통번역학을 가르치는 교강사진 사이에서 제기되어온 지는 오래이다. 지난 2000년도 한국 외국어 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에서 교강사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성초림 외 2001), 제2외국어로의 번역에 있어서 원문 텍스트의 해독은 비교적 쉬운 작업인 반면 도착어 표현력에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한국어 → 외국어로의 번역에 있어서는 도착어 구사력이나 도착어의 전문 용어, 도착어의 문법적 정확성, 자연스러운 도착어 표현 등이 주요한 교육 모델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모국어로 준하는 수준의 구사능력을 가질 정도로 훈련하고, 또 도착어의 구사능력을 바탕으로 번역품질의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한국어 → 외국어 번역의 경우, 교강사진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항목은 도착어의 표현이었다. 그런 이유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과 교강사진 사이에 가장 효율적인 AB(한국어 → 외국어) 번역 훈련 방법과 번역 평가 방법 중 표현력과 구사능력을 늘리고, 검증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모델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AB

2) 대한출판문화협회 통계자료 참고링크

[http://www.kpa21.or.kr/bbs/board.php?bo\\_table=d\\_total](http://www.kpa21.or.kr/bbs/board.php?bo_table=d_total)

번역 훈련의 효과적인 모델의 하나로 역(逆)번역을 제시하는 바이다.

역번역(Back Translation)은 번역문을 원래의 텍스트 언어로 번역한 것인데, 원 텍스트 없이 순전히 번역문에 의존해 재번역하는 것을 말한다.

A “back-translation is a translation of a translated text back into the language of the original text, made without reference to the original text. But while useful as an approximate check, it is far from infallible. (Crystal 2004: 5-6).

일반적으로 역번역은 번역물의 품질 평가를 위해 역번역을 원텍스트와 비교 분석하는데 사용되어왔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오류의 여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비교적 객관적이고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역번역 작업을 통해 원천텍스트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모국어가 아닌 B언어에로의 보다 '자연스러운' 번역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 2. 사례 연구와 분석

### 2.1. 텍스트 선정과 비교 연구

이번 연구는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의 한영 번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번역 훈련 방법과 평가 방식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원천 텍스트(ST: Source Text)에서 이미 번역되거나 재구성된 제품 사양서나 기사, 안내문을 영어로 번역한 후 ST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메시지를 담은 문장을 찾아서 비교, 분석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의 학생이 비슷한 번역 성향과 오류를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다. 원천텍스트(ST)에서 번역되거나 재구성된 한국어 텍스트(TT1: Target Text1)를 역(逆)번역(TT2/ BT: Back Translation)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언어적 차이와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역번역된 텍스트(TT2)와 영어 원천텍스트(ST)를 비교하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짚어내는 등 번역 품질 평가에도 상대적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관

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성격의 제품 설명서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뉴스 기사 텍스트를 ST로 선정하였다. 역번역 텍스트로 제품 설명서와 뉴스 기사를 선정한 이유는 감정적이고 문화적인 요소가 최대한 배제된, 피터 뉴마크(Peter Newmark)가 분류한 텍스트 유형에서 정보성 텍스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보성 텍스트는 소설이나 에세이 등 표현적인 텍스트에 비해 좀 더 정형화되어있고 목표독자층에게 동일한 효과와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적 특면이 부각되는 특징을 가진다. 제품 설명서로는 한국으로 수입돼 판매되고 있는 인공지능 청소로봇, 'iRobot 룸바'의 제품 설명서(TT1)를 영역하도록 한 후, 실제로 이것은 역번역 과정에 해당하는데, 그 영역된 텍스트 TT2를, iRobot 룸바의 영어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품 설명서와 특징(ST)을 비교 분석하도록 했고, 뉴스 기사는 2009년도 7월 15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논란 남긴 행복한 조력자살'이란 제목의 외신 기사(TT1)를 영역한 후, 그 TT2를 한국 언론사를 통해 번역되거나 재구성되기 전의 관련 영어 기사, 즉 ST와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몇 가지 눈에 띄는 공통적인 특징과 그것이 시사하는 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AB 번역의 훈련과 평가 노력을 시도해보았다. 단, TT1은 ST의 번역문 혹은 재구성이지만, 기능적 측면을 고려해 최대한 자연스러운 한국어 텍스트로 쓰였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또 본 연구에 사용된 TT1역시 번역투가 거의 없거나 최소화된 텍스트를 선정했음을 밝혀둔다.

## 2.2. 역(逆)번역 사례 연구와 분석

동일한 텍스트를 역번역한 학생들의 TT2에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관찰되었다. 이를 분석해 나가는 과정에 영어와 한국어의 독특한 언어적, 언어외적 특성에서 유발되는 차이점을 번역에 반영할수록 최대한 자연스러운 번역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럼 이제부터 번역 과제 텍스트 TT1과 역번역문 TT2, 그리고 영어 원문 ST간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된 구체적 차이점과 특징을 살펴본다.

그러나 논문에 소개한 사례는 정보 자체가 생략되었거나 추가되는 경우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또한 원래의 ST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영어 번역문을 평가하고 수정할 것을 제안하지만, 한국어 번역문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영어 번역문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다만, 한국어 번역문과 영어 원문의 불일치에 주의를 기울여, 한영 번역의 근본적인 차이를 한국어 2차 원문(TT1)과 더불어 영어 1차 원문(ST)과의 언어적, 표현적, 문화적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더 나아가 기존 한영 번역 교육에 대한 한 가지 대안을 찾아보고자하는 본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 2.2.1. 주어 구조

역번역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주어 구조였다. 한국어 텍스트에 서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행동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주어를 반드시 명시해줘야 하는 영어로 옮길 때 적당한 주어를 찾는 것이 번역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어왔던 것을 반영하듯, 역번역 TT2와 영어원본 ST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주어 구조로 인한 차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TT1 : 청소를 하다가 벽이나 가구가 가까워지면 이를 감지하고 속도를 줄  
입니다.

위의 문장을 번역할 때 TT2에서는 생물 주어, ‘룸바 사용자’가 생략되었다고 보거나 ‘벽이나 가구’가 ‘가까워지다’의 주어로 보고, 혹은 ‘Roomba user’가 ‘벽이나 가구’쪽으로 ‘가까이 가다’라고 번역하거나, 감지하고 속도를 줄이는 주체를 ‘룸바’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원 영어원문, ST은 다음과 같았다.

ST : The new Roomba detects walls and objects like furniture and slows  
down for a less robust impact on the wall or furniture.

한국어의 경우, 주어가 불분명하고 의미상 주어가 서로 다른 구나 절도 주어가 생략된 채 한 문장 내에서 나란히 배치되었는데, 즉 ‘청소가 끝나거나’에서 청소는 주체나 주어가 아닌 목적어이고, 벽을 감지하고 속도를 줄이는 주체

는 룸바였다. 하지만 ST의 경우에는 주어가 구체적이고, 무생물 주어를 의인화해서 사용하는 의식의 차이도 관찰되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

TT1: 청소가 끝나거나 배터리가 다 되면 룸바 스스로 홈베이스로 이동해 충전 모드로 들어가는 자체 충전 모드도 탑재되었습니다.

ST: When the battery is low or it has completed a cleaning cycle, the vacuum automatically returns to the charging Home Base, so that it will be ready for the next cleaning session.<sup>3)</sup>

여기서도 대부분 한국어의 경우는 주어를 생략하거나 애매하게 표현 (룸바/배터리)해서 when you/they finish cleaning, 혹은 when cleaning is done 등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영어의 경우엔 의미 단위마다 실제 주어를 정확히 사용- the battery/ it(Roomba)/ the vacuum(Roomba) 등 정확한 하위 개념을 찾아 사용했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영어의 경우에는 주제어가 주부(主部)에 배치되지만 무생물 주어를 꺼려하는 한국어에서는 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주어를 사용하고, 주제어를 표현하는 설명은 술부(述部)에 배치한다는 점이 있다.

TT1: 충격센서가 있어 범퍼가 벽에 부딪혔을 때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범퍼가 벽에 부딪친 후에는 벽에 바짝 붙어 청소합니다./ 낭떠러지 인식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문턱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ST: Infra-red cliff sensors in the non-marring bumper detect stairs to keep the unit from falling, as well as furniture and walls for cleaning right up to the edge. / It has an edge brush to clean along surface edges. / It senses a cliff or drop-off point and to react by reversing course automatically.

3) 논문에 소개한 사례는 정보 자체가 생략되었거나 추가되는 경우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또한 원래의 ST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영어 번역문을 평가하고 수정할 것을 제안하지만, 한국어 번역문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영어 번역문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다만, 한국어 번역문과 영어 원문의 불일치에 주의를 기울여, 한영 번역의 근본적인 차이를 한국어 2차 원문(TT1)과 더불어 영어 1차 원문(ST)과의 언어적, 표현적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더 나아가 기존 한영 번역 교육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고자했다.

TT1에서는 주요 정보가 술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수의 정보를 전달할 때는 ‘~하고, ~하며’ 식으로 구가 나열되면서 문장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정도나 방향 등을 강조할 때는 ‘바짝’ 같은 부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ST에서는 정보를 분산하여 배치, 즉 ‘infra-red cliff sensors in the non-marring bumper’처럼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 등으로 주요 정보를 주부(主部)에 처리한 것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AB 번역시 좀 더 ST에 근접하는 주어 구조를 찾아서 정보를 분산 배치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다음의 예는 냉장고 마케팅 전략 보고서<sup>4)</sup>로, TT2에 해당하는 ‘Marketing Strategies of Dawlance and LG’와 ST인 ‘Hairer’s Marketing Strategies in India’와 비교하면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주어 사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TT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ne should know what marketing strategies ought to be.</li> <li>● First of all we should know who the main players in the market are.</li> <li>● We will go through the profiles of the companies in brief.</li> </ul>
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uch has been written about the future of "smart" appliances that will be programmed to keep track of ...</li> <li>● The fridge was placed in 50 homes to monitor consumer reaction.</li> <li>● The fridge can also be controlled by several terminals located through the home.</li> </ul>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역번역문, TT2에서는 일반 주어, one, we, it 등을 자주 사용해 대상이 불명확하고 막연한 느낌을 주는 반면, ST는 주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일반 주어일 때는 수동문을 적절히 사용해 초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관찰됐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TT2에서는 생물 주어를 써서 ‘조정하다’, ‘설치하다’ 등 자동사로 역번역했지만, 영어는 타동사를 이용한 수

4) 이 예문의 경우, TT2가 ST와 완전히 일치하는 텍스트는 아니다. LG의 마케팅 전략 보고서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사례이고, 역번역 사례로 제시될 원천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아 본 예문에서는 동종 기업, Hairer의 마케팅 전략 보고서를 ST로 삼고 비교분석하였다. 텍스트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같은 주제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 ST 텍스트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해 비교 분석하였음을 밝혀둔다.

동태 문장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어와는 달리 영어에 타동사가 그만큼 발달한 것은 어떤 행위나 작용의 주체를 따지는 데 민감하다는 뜻이고, 그것은 달리 설명하자면 주부(主部)에 주제어와 주요 정보가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의 주어는 수식이 한정돼 절로 풀어쓰는 경향이 있고, 영어는 효율적인 압축이 가능한 경우 주부(主部)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AB 번역에서 가장 크게 지적되는 점은 한영 번역문의 단조로움인데, 메시지를 다 전달하더라도, 번역문에 중복이 많고 읽을 때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쉽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어에서는 동일 주어는 생략된 채 술부에서 새로운 정보를 절로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걸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숨어있는 주어를 찾아 번역하다보니 주어 반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TT1: 센서가 방의 크기를 인식하고 큰 방에서 작은 방으로 청소를 진행하는 라이트하우스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위 문장을 번역할 때 상당수의 학생이 *Roomba has an additional Lighthouse function in which sensors ~*이라는 구문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ST에 표현된 라이트하우스 기능설명은 다음과 같았다.

ST: A virtual Wall Lighthouse directs Roomba to completely vacuum one room before moving on to the next... Lighthouse mode ensures the most efficient room-to-room cleaning : it confines Roomba to one room until that room is thoroughly vacuumed then directs Roomba to the next room.

Roomba라는 주어를 반복하는 대신, 새로운 정보를 주어로 사용해 타동사(*direct, confine*)로 문장을 풀어감으로써, 인과 관계도 더 명확하고 문장의 단조로움을 해소하였다. 따라서 한영 번역에서 주제 중심의 한국어 특성상 주어에 ‘룸바’가 자동 생략돼 처리되고 새로운 정보는 절로 풀어나가는 문장 구조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새로운 정보를 주부로 처리해서 문장을 끝어가는, 다시 말



해 새로운 주어 구조와 정보를 찾아 번역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2.2.2. 경제성 - 동사와 중복 표현의 문제

영한 번역에서 주어 구조 다음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TT2와 ST의 차이점은 동사의 경제성이었다. 번역가의 번역 능력과도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동사를 사용하면 AB 번역의 품질이 크게 향상된다는 이론적, 경험적 사실을 번역가가 인식하고 가장 경제적이고 정확한 동사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번역 교육과 품질 평가에도 좀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본다.

TT1: 에드워드는 작위까지 받는 지휘자였지만..

TT2: He was awarded a knighthood

ST: He was knighted

TT1: 의료진이 아닌 사람이 자살을 돕는 것은 위법이다.

TT2: Aiding suicide by non-professionals is in violation of the law.

ST: Assisting suicide without medical help is outlawed.

위의 TT2 번역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언어의 경제성 면에서는 ST의 knighted, outlawed 같은 단일 단어 타동사에 비하면 길어지고 반복되는 느낌이 다. 문장이 길어지게 된다면 TT2에서와 같은 동사 사용은 번역 텍스트의 긴장도와 속도를 늦추는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본다.

TT1: 이달 초 상원에 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부결됐다.

TT2: A revision was presented to the Senate but rejected.

ST: An amendment was defeated in the Senate.

TT1에 ‘제출하고 부결되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옮겨 TT2에서 present와 reject가 쓰였지만 역번역문과 원문을 비교해보니 원문에서는 defeat라는 동사

하나로 ‘제출돼 부결된’ 과정이 포함돼있었다. 물론 A언어와 B언어에 모두 능통하고 관련 텍스트에 능통한 번역가가 아닌 이상 defeat라는 동사를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바는 AB번역 수업에서 A언어 사용 교수와 B언어 원어민 교수가 함께 수업하며 교정하는 이상적인 번역수업이 경제적,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번역을 통한 번역 훈련과 번역 평가가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함이다.

같은 맥락에서 TT2에서는 동사뿐 아니라 지시어와 목적어 면에서도 중복적인 표현이 많아 대체적으로 번역문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은 한국어 텍스트에서 논리상 당연한 정보를 별도로 언급, 즉 상위개념을 사용해 다시 정리하는 특성을 보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위의 주어 구조 설명에서 예로 제시됐던 예문을 살펴본다.

TT1: 센서가 방의 크기를 인식하고 큰 방에서 작은 방으로 청소를 진행하는 라이트하우스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TT1: 청소가 끝나거나 배터리가 다 되면 룸바 스스로 홈베이스로 이동해 충전 모드로 들어가는 자체 충전 모드도 탑재되었습니다.

ST: A virtual Wall Lighthouse directs Roomba to completely vacuum one room before moving on to the next..

ST: When the battery is low or it has completed a cleaning cycle, the vacuum automatically returns to the charging Home Base, so that it will be ready for the next cleaning session.

TT1에서 ‘스스로 움직이며 청소하는 기능이 추가됐다’와 ‘자체 충전 모드도 탑재되었다.’는 ‘스스로 움직이며 청소한다’, ‘자체 충전한다’라는 종결 어미에 ‘기능’과 ‘모드’라는 개념 정리용 명사를 붙여 마무리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ST를 보면, function이나 mode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개념 설명에 집중하고 있다. 영어가 동어 반복과 cliché를 지극히 꺼리는 언어라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어 반복을 꺼려한다는 점은 조력 자살 관련 기사의 사례분석에서도 잘 드러났다. TT1에서는 초지일관 assisted suicide로 번역하는 성향을 보였지만, ST에서는 suicide외에도 assisted death나 assisted

dying, ending their life, allowing suffering people who are close to death to die, seeking help to die, help another to kill oneself, kill himself with help, be helped to die, lives are shortened by design and with others' help처럼 다양한 표현을 활용해 표현한 것이 눈에 띈다.

TT1: 그러던 중 아내 존은 최근 간암, 췌장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TT2: Joan was also diagnosed with liver and pancreatic cancers and became terminally ill.

ST: Joan was also diagnosed with terminal liver and pancreatic cancers.

TT2의 번역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암 진단을 받고 병세가 악화돼 시한부 선고를 받은 시간적 병세 악화의 느낌이 강한 반면, ST는 말기 진단을 받고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더욱 살아있다. 역번역을 하고 ST와 비교하면서 표현의 중복없이 terminal이라는 형용사로 말기와 시한부의 표현이 다 들어가도록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T1: 조력자살전문 의료회사, 디그니타스 그룹이 운영하는 취리히 클리닉

TT2: A clinic run by a Zurich-based medical company Dignitas group specialized in assisted suicide.

ST: Dignitas, a suicide clinic in Zurich.

TT2는 TT1의 원문을 따라 그대로 번역하면서 문장이 길어지고 문체가 지루해졌지만 ST를 보면 a suicide clinic in Zurich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돼있었다. 역번역을 통해 발견한 AB 번역의 문제점은 TT1 구조를 그대로 따라서 번역하고, B언어에 최대한 가까운 구조와 뉘앙스를 살려 최대한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스위스 조력자살 전문회사, 디그니타스를 표현하는 데도, ST에서는 the assisted suicide group Dignitas, the Swiss organization, the Swiss suicide assisting group, the Dignitas clinic 등으로 TT2에서 보다 훨씬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런 역번역 작업을 통한 비교 분석이 B언어가 제2 외국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번역가의 번역 능력을 배양하는 좋은 번역훈련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2.3. 사용어의 의미적 상응성

영어를 한국어로 언어 고유의 맛을 살리는 방식에 차이가 있듯이, 역으로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도 영어 고유의 맛을 살리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것은 트리어(Trier)<sup>5)</sup>와 포르치히(Porzig)<sup>6)</sup>에 의해 도입된 의미장 이론(semantic field theory)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의미장 이론’은 훔볼트와 헤르더의 언어 철학과 소쉬르의 구조적 언어관계에 기반을 두고 1920년대와 30년대에 입센, 줄르, 포르치히, 트리어로부터 시작된 이론으로, ‘장이론(field theory)’으로도 불리는데, 특정 낱말이 지니는 의미들을 하나의 범주 속에서 이해하려는 의미 이론이다. 의미를 중심으로 의미장 혹은 개념장과 어휘를 중심으로 하는 어휘장 또는 낱말밭으로 구분된다. 한 단어의 의미는 의미적 연관성을 갖는 이웃들과의 인지적 구조 속에서 이해된다. 즉, 문화적 배경, 경험, 세상에 대한 믿음, 관례의 구조화된 배경 등과 관련하여 이해된다. 의미장은 관련되기는 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의미들의 집합이다. AB 번역시 역번역과 원문 비교 평가에서도 A언어와 B언어 간 다른 어휘장과 의미장을 고려한 번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음의 예를 살펴본다.

TT1: 룸바에는 방 구조 인식 센서와 바닥 재질 인식 센서가 장착돼 있어 각 방의 구조와 바닥 재질에 알맞은 최적의 청소 알고리즘을 선택해 깔끔히 청소합니다.

ST: 1. Roomba automatically adjusts from carpets to hard floors and cleans everywhere you want while avoiding off-limit areas.  
2. Roomba automatically transforms from one surface to the next, effectively lifting dirt, dust, debris from carpets, rugs, tile, linoleum

5) 트리어 (Trier)는 1930년대 계열적 장이론 (field theory)를 확립하였다. 어휘장이 개별 낱말들로 일종의 모자이크처럼 구조되어 있다고 본다.

6) 포르치히 (Porzig)는 트리어의 장이론이 언어 외적인 것에 의존한다는 것을 비판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and hardwood floors.

3. It uses artificial algorithm to help ensure that it covers the entire surface of your room in each cleaning.

한국어 텍스트에서 ‘바닥 재질에 알맞은~’은 표현은 ST에서 ‘from carpets to hard floors’로, ‘carpets, rugs, tile, linoleum and hardwood floor’로 B언어의 주택문화에 알맞은 구체적인 재질의 열거로 표현되어있다. 카펫이나 러그보다는 장판을 까는 한국 주택 구조 때문에 B언어로 번역할 때, - 특히 제품 설명서 같은 텍스트를 번역할 때는 - 바닥 재질은 장판이 아닌 B언어의 주거 구조에 맞게 카펫과 러그, 타일, 나무 바닥 등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B언어 고유의 문화 친화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한 언어를 구성하는 단어는 실재를 반영하기 보다는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관심사와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같은 의미장 내에서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한 어휘를 찾아 번역하는 것이 좋은 번역 전략이다.

하지만 목표 언어에는 하위어는 있지만 의미장을 표기할 상위어가 없을 수도 있다. 외국어를 한국어로 옮길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히는 친족어를 예로 들어본다. 한국어에서는 손아래, 손위를 따지고, 형제나 자매의 혼인으로 인한 가족 관계의 호칭도 세분화되어 이에 상응하는 영어 표현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럴 경우 비등가 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상위어로의 번역이 효과적인 번역 전략으로 제시된다.

#### 2.2.4. 주제 구조와 정보 구조

번역의 텍스트성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텍스트의 여러 부분이 서로 관련을 맺는 표층결속성과 의미 단위로 텍스트를 이해하게 만드는 의미결합 관계인 심층결속성인데, 그 결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언어 요소의 선형 배열, 즉 어순(word order)이다. 원천 텍스트에서 주제 자리에 위치한 요소를 목표 텍스트에서도 쉽고 자연스럽게 주제 자리에 위치시킬 수 있다면 두 텍스트의 전개 방법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와 영어의 경우에는 문법적인 차이로 인해 선택과 배열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번역문의 자연스러운 결속성이 유지되는 어순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TT1: 나란히 누운 채 딸과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물을 투여받아 생을 마감했다.

TT2: Lying side by side, Mr. and Mrs. Downes ended their lives by lethal injection, surrounded by their daughter and son.

ST: Holding hands and watched by their son and daughter, they drank a lethal dose of barbiturates and died.

위의 TT2와 ST를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구조상의 문제로, ST의 경우엔 분사구 + 주절이라는 간단한 구조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반면, 역번역인 TT2의 경우엔 TT1에 집착한 나머지 분사구 + 주절 + 분사로 문장 자체가 길어지고 구조도 산만해졌다. TT2에서는 ‘생을 마감했다’는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주절에 배치시킴으로써 어순과 사건의 순서가 뒤죽박죽 엉켰지만 ST에서는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약물을 마시고’, ‘사망하다’로 시간 흐름의 순으로 배열해 훨씬 자연스럽게 이해가 편했다. 주제 구조를 부각시키기 보다는 시간 흐름에 맞춘 정보 구조가 가독성을 높인 것이다. TT2는 여러 토막으로 나뉘고 방향성이 없다는 인상을 준다. 텍스트의 산만함은 번역가의 정보 선택과 배열로 크게 개선될 수 있는데, 역번역 비교를 통해 살펴본 바로는 사건의 순서에 맞춘 정보 배열이 주제 구조를 강조한 문장 구조보다 자연스러움과 가독성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TT1: 영국 정부는 타인의 자살을 도울 경우 최고 징역 14년형에 이르는 처벌을 하고 있다.

TT2: The British government subjects the accused of assisting suicide up to 14 years of prison.

ST: In Britain, helping somebody to die carries sentence of up to 14 years.

TT2의 역번역문이 TT1의 문장 구조와 주제를 따르다보니 훨씬 어렵고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갖게 됐지만, ST와 비교해보면 사용된 어휘와 문장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오히려 전체 텍스트의 심층결속성을 잘 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지금까지 영한 번역 사례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Rain kept me from going to the concert.’라는 문장을 번역할 때 ‘비는 나를

콘서트에 못 가게 했다'가 아니라 '비 때문에 콘서트에 못 갔다'라고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국 정부가 처벌하다'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 즉 '자살을 도우면 중형에 처해진다.'라는 주제 정보를 찾아 텍스트성을 최대한 살려 번역하는 능력과 훈련이 요구된다.

#### 2.2.5. 언어적/언어외적 암시된 정보

최근 텍스트 연구에 등장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함축이다. 모든 정보를 드러내지 않아도 화자와 청자, 저자와 독자간 암묵적으로 합의된 방식으로 대화와 텍스트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함축은 그라이스(Grice)가 말하는 '참여하고 있는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대화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필요한 만큼만 기여하라'(Grice 1975: 45)는 협조의 원리와 네 가지 중요한 협조 격률, 즉 양(quantity), 질(quality), 관련성(relevance), 방법(manner)의 바탕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문제는 번역가가 원천 텍스트에서 발생한 언어적/언어외적 함축을 모르고 지나치거나 생략해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실수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다. 목표언어의 구조와 목표독자의 성격, 그리고 목표 문화의 관습 차이로 발생한 함축이 번역가에게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번역이 나오는 원인이 된다. 역번역을 통한 비교연구에서도 언어적, 언어외적 암시된 정보로 인해 번역오류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다.

TT1: 지난해에는 럭비 경기를 하다 몸이 마비된 23세 영국 청년이 이 클리닉에서 목숨을 끊었다.

TT2: A 23-year-old British man, who were paralyzed during a rugby game.

ST: He had been paralyzed in a rugby accident.

위 TT1 문장을 번역한 번역학과 학생의 90%가 TT1의 언어 정보를 그대로 옮겨 'paralyzed during a rugby game' 혹은 'paralyzed while playing a rugby game'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럭비 경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고가 아닌 질병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마비의 가능성이 포함돼 TT1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완벽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반면 ST에서는 ‘rugby accident’로 명확하게 마비의 원인이 럭비 경기 도중 다친 것임이 드러났다. TT1에 언어적으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언어외적으로 숨겨진 정보, 즉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하다’라는 함축을 찾아내 정확한 관련성(가)을 찾아서 번역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본다.

TT1: 이들은 딸과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물을 투여받아 생을 마감했다.

TT2: The two ended their lives with a dose of medicine lying side-by-side as their children watched by.

ST: They drank a lethal dose of barbiturates and died.

앞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약물’을 medicine이나 drug로 번역해, 목숨을 끊는 독극물이라는 뜻과는 반대되는 오역을 하고 말았다. TT1에 쓰인 ‘약물을 투여받다’에는 생명을 끊는 치명적인 물질을 담은 약물이라는 함의가 담겨있지만, 상당수의 번역가가 번역과정에서 이를 간과하는 우를 범했다. 반면 ST에서는 barbiturate가 진정제나 최면제로 쓰이는 약물, 바비르투르라는 걸 모른다고 해도 lethal dose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명백하게 의미가 전달되고 있다. TT1에 암시된 정보를 번역가가 맥락에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목표텍스트를 읽는 독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가는 원천텍스트에 숨겨진 언어적, 언어외적 정보를 찾아내 필요할 경우 목표텍스트로 명쾌히 전달하거나, 목표텍스트로 옮길 때 뜻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목표텍스트가 B언어인 번역자는 A언어 사용자로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함의를 무심코 지나치고 B언어로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원어문의 번역문 교정이 필요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기도 하다. A언어 사용자가 동일하게 생각하는 당연한 정보, 그래서 숨겨도 되는 정보의 공통분모가 B언어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역번역을 통한 번역 훈련과 평가를 꾸준히 한다면 BA 번역 뿐 아니라 AB 번역에서도 협력의 재범주화가 가능할 것이다.

7) Grice의 격률 이론은 영어권 세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 즉 성실성, 간결성, 관련성을 반영하는데 유용하다. (Baker 1992: 237)



### 3. 맺음말

아웃바운드 통번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2언어로서의 번역학습에 효과적인 학습 모델이 없다는 것이 통번역학 교강사진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역(逆)번역을 통한 AB 번역 훈련과 평가 모델을 번역 수업에 적용한 후 사례 연구를 통한 효율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먼저 영어텍스트(ST)를 최대한 형태적, 통사적, 어휘적으로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번역한 텍스트(TT1)를 선정해 영어로 역번역(TT2)한 후, 이를 다시 원래의 영어텍스트(ST)와 비교, 분석해 형태적, 통사적, 어휘적 차이를 알아보고, 거기서 도출되는 효과적인 AB 번역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글쓰기 표준화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기능성과 정보성이 강조되는 텍스트를 선정해 비교 연구하였다.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재구성된 제품 설명서와 뉴스 기사 텍스트를 역번역한 후 ST와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몇 가지 눈에 띄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큰 차이점을 보인 것이 주어 구조였다. 한국어 텍스트에서는 주어가 생략되거나 생물 주어를 사용해, 행동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지만, 주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영어로 옮기면서 TT2와 ST의 주어 구조가 크게 차이가 생기는 것이 관찰되었다. 영어는 주제어가 보통 주부(主部)에 배치되지만 한국에서는 주어를 생략하거나 다른 주어를 사용하고, 주제를 표현하는 설명은 술부(述部)에 배치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한국어의 주어는 수식이 한정돼 절로 풀어쓰는 경향이 있었고 영어는 가능한 경우 주부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TT2 번역 텍스트의 단조로움은 TT1에 생략되거나 숨어있는 주어를 찾아 번역하다보니 같은 생물 주어가 반복되는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 AB 번역의 가장 큰 특징은 ST에 비해서 동사 사용에 경제성이 떨어지고 중복 표현이 많았다는 점이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번역가가 TT1의 문법적 구조에서 최대한 자신을 떼어놓고 ST의 경제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동사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영어 원문과 비교하는 번역 훈련을 반복하면서 경제성과 정확성을 살린 어휘를 찾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채득하고 번역 품질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동사 뿐 아니라 지시어와

목적어도 중복적인 표현이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세 번째 특징은 AB 언어간 서로 다른 의미장에서 기인한 상응어의 차이였다. 언어는 말하는 사람의 관심사와 경험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해 같은 의미장 내에서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한 어휘를 찾아 번역하는 것이 좋은 번역 전략이다. 목표언어에 의미장을 표현할 상응어가 없을 경우, 비등가 문제를 해결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상위어로의 번역이다.

네 번째는 선택과 배열의 문제, 즉 주제 구조와 정보 구조의 차이를 찾아서 가장 자연스러운 목표텍스트로 번역하는 것이다. 텍스트의 산만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층 및 표층 결속성을 유지하도록 번역가가 정보를 선택하고 배열해야 하는데, 사건의 전개 순서에 맞춘 정보 배열이 주제 구조를 강조한 번역보다 자연스럽게 가독성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AB 번역의 다섯 번째 특징은 언어적, 언어외적 암시된 정보 처리였다. 번역가가 원천 텍스트에서 발생한 언어적, 언어외적 함축을 모르고 지나치거나 생략해 부지불식간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관찰됐다. TT1에 언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숨겨진 정보를 찾아 개별적인 등가 단어가 아닌 문맥에서 정확한 관련성을 찾아서 번역해야 오역을 피할 수 있다.

이상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한영 번역에서 목표언어인 영어의 기능별 텍스트에 따른 표준을 찾아 역번역 훈련과 평가를 반복한다면,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력을 배양하면서 어휘의 경제성을 높이고 실수와 오역을 최소화하는 번역 품질 개선 효과와 더불어 AB 번역 수업의 난제였던 객관적인 번역 평가 기준 마련이 가능하다는 순기능이 본 연구를 통해 관찰되었다.

## 참고문헌

- 김정우 (1996) 『영어를 우리말처럼 우리말을 영어처럼』, 창문사.
- 성초림, 이상원, 이향, 장현주 (2000) 「번역 교육 현장에서의 번역물 품질 평가 - 한국외대 통역번역대학원 교강사 설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000년 제 2권 2호, 『한국 번역학회』, 37-55.
- 안희재 (2009) 『번역의 탄생』, 교양인.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Baker, Mona. ed (1998)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Beaugrande, Robert and Wolfgang Dressler (1972)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 New York: Longman.
- Crystal, Scott (2004) *Back Translation: Same questions - different continent*, London: Association of Translation Co.
- Grice. H.P. (1975)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
- Maier, Carol. ed (2002) "Evaluation and Translation", *The Translator* Vol. 6 No.2.
- Newmark, Peter (1998) *A Textbook of Translation*, New York: Phoenix Elt.
- Porzig, Walter (1934) *Intrinsic Semantic Relations*, English translation by Elke Gehweiler of 'Wesenhafte Bedeutungsbeziehungen': Beitrage zur deutschen Sprache und Literatur.
- Snell-Hornby, M. (1988)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Suttleworth Mark & Cowie Moira (1997)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Routledge.
- Toury, G. (1977) *Translational Norms and Literary Translation into Hebrew*, Tel Aviv: *The Porter Institute for Poetics and Semiotics*, Tel Aviv U.
- Trier, Jost (1934) *The Linguistic Field, An Investigation*, English translation by Elke Gehweiler of 'Das sprachliche Feld : ein Auseinandersetzung': Neue Jahrbucher fuer Wissenschaft und Jugendbildung.

[Abstract]

### **Training and Evaluating Korean-English Translation through Back Translation**

Lee, Jiyeon

(YTN Simultaneous Interpreter/ Ehwa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mp; Translation)

With a sharp rise in demand on out-bound translation,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of finding effective training modules for translation from a native language into a second language, or AB translation, is yet to be addressed. So this study applied 'back translation' technique in the classrooms. Graduate students of Ehwa GSIT were required to translate a news article and a product specification, which had been translated from English into Korean(TT1), then after back-translating(TT2) the TT1, they made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original English text(ST). There were quite a few, but noteworthy differences between TT2 and ST. One of them is the subject structure. As the Korean text(TT1) either has no subject at all or prefers to have animated subjects, students found it difficult to find corresponding subjects in TT2, which resulted in repeated subjects and thematic information. Second difference between TT2 and ST was that the TT2 was not up to the efficiency of ST in terms of verb use, and the TT2 showed redundancy of using the same objects and references. Third was the unequivalent lexicons between TT2 and ST stemmed from different lexical fields of the two languages. Forth was difference in thematic structure and information structure. Fifth, TT2 and ST have shown a notable difference in dealing with linguistically and non-linguistically implicit information. Taking note of all these syntactical, semantical and lexical differences between TT2 and ST, this study shows back translation proved to be one of useful education modules as well as research tools for AB translation training and evaluation.

▶ Key Words: AB translation training & evaluation, K-E translation, back translation, thematic & information structure, field theory, implicature.

이지연

이대 통역번역대학원 겸임교수/YTN 동시통역사

cafe4u@hanmail.net

관심분야: 미디어 통역, 번역/실무 통역

논문투고일: 2010년 4월 21일

심사완료일: 2010년 6월 09일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10일